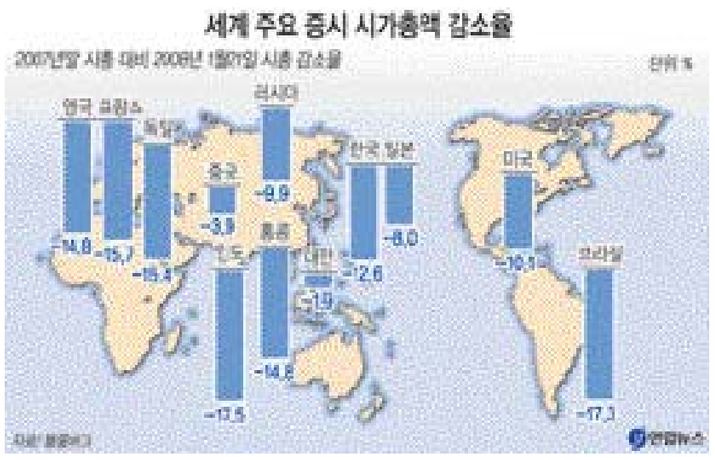
연기금 투자 주식시장 구원투수 될까

증시 패닉은 미국發 … 정부 대처에는 한계

美 경기 불안 …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국내외 주식시장은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나 이 안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 **"펀드환매땐 국민연금 투입한다"** =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은 주식시장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 침체를 가속화할 경우 그동안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돼 오던 펀드투자자의 대량환매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기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대량환매 등 급격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시로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만약 펀드 대량환매 사태가 실제로 발생,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국민연금 9조원 투입,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 대처에 한계** = 현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라는 대외악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3일 열린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세제완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미 취한 것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별다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도 이날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의 주식투자 조기집행, 면밀한 모니터링과 펀드런 발생시 긴급 자금지원 등 외에 이렇다할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 **코스피지수 1,800선까지 반등 가능** =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인하로 투자심리 안정을 찾을 경우 기술적으로 1,800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작년 11월초 2,000선에서 최근 1,600선까지 400포인트 가량 급락했기 때문에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낙폭의 절반 가량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증시가 현재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 등을 가정한 것이어서 향후 진행상황이 예상을 벗어나게 되면 증시 반등세는 다시 꺾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펀드 순자산 총액 급감

21일 현재 312조원 … 설정액과 역전

연일 계속되는 증시 급락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급감하면서 설정액과 순자산총액이 역전됐다.

2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1일 현재 312조1천520억원으로 설정액인 315조680억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도 125조2천518억원으로 설정액인 126조5억원을 밑돌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 급락으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지난 주부터 이미 역전됐으며, 해외 주식형펀드는 순자산총액과 설정액의 격차가 2조6천억원 수준으로 좁혀진 상태다.

설정액은 펀드 투자자가 운용사에 맡긴 투자원금이며, 순자산총액은 펀드의 현재 가치로 설정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생겼다면 순자산총액은 설정액을 웃도는 것이 정상이지만, 증시 급락으로 단기 손실폭이 커지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설정액은 납입자본금, 순자산총액은 자본총계에 해당돼 경영상 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셈이다.

올 들어 전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8조620억원(2.52%) 감소한 반면 설정액은 17조3천800억원(5.8%) 증가했다. 이 중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1조9천349억원(8.7%) 줄었으나, 설정액은 9조6천90억원(8.3%) 늘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 사흘만에 반등

코스피 19.30P 올라 … 코스닥도 600선 턱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 금리인하로 글로벌 증시의 패닉 현상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도 사흘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19.30포인트(1.21%) 오른 1,628.42로, 코스닥지수는 5.18포인트(0.84%) 오른 619.98로 마감했다.

미국발 호재로 급등 출발한 지수는 장중 1,659.28까지 반등했다가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강화하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장 막판에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은 다른 아시아 증시와 함께 재차 오름세로 방향을 잡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FRB는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긴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방 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7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75%포인트나 대폭 인하한 것은 미국경제가 극도로 침체됐던 198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대폭 인하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의 투매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경영자 만찬 인수위원장 제 31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와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곽영욱 남동발전 사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남중수 KT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스

고용률 6년간 63%대

3년 연속 0.1%포인트 상승 그쳐

우리나라 고용률이 최근 6년간 63%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년 연속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59%로 급락했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이후 빠르게 회복됐지만 2002년 이후 최근 6년간 6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국면에 진입했다.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고용률은 빈곤과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1위로 그리스, 멕시코 등과 함께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 '수주·잔량·인도' 세계 1위

작년 3천200만CGT 수주…전세계 물량의 40%

수주 잔량도 2003년 이후 세계 1위 자리 안놓쳐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해 조선 수주, 수주잔량, 인도 등 3개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23일 조선·해운 시황분석 전문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3천2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수주량을 기록, 전세계 수주량 7천920만CGT의 40.4%를 차지하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중국이 2천920만CGT, 일본 650만CGT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난해 조선 수주량은 총 7천220만CGT로, 전세계 수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잔량에서도 한국은 6천440만CGT로 전세계 수주잔량(1억7천820만CGT)의 36.1%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렸다. 한국이 수주잔량 부문에서 세계최고에 오른 것은 지난 1999년으로, 이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중국이 5천240만CGT, 일본이 3천30만CGT 등의 수주잔량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건조돼 발주사에 인도된 선박물량을 살펴보면 한국이 1천120만CGT로 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세계 인도물량의 34.0%이자, 2003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해당한다.

인도 측면에서는 일본이 중국 보다 앞서 일본 860만CGT, 중국 570만CGT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주잔량(CGT)을 기준으로 한 업체별 순위로는 현대중공업 1천444만9천CGT, 삼성중공업 1천94만4천CGT, 대우조선해양 968만7천CGT, 현대미포조선 504만1천CGT, STX 416만2천CGT, 현대삼호중공업 401만CGT 등으로 세계 1-6위에 한국 업체들이 올랐다. /연합뉴스

펀드 판매사 능력·자질 '미흡'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은행 10곳·증권사 17곳 평가

대부분 전문성 부족·사후관리 미비 등 문제점 지적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들에 대한 첫 현장 조사에서 과다 보수와 판매인력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23일 불완전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펀드판매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상 처음으로 펀드판매회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학계 및 사회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매회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7개사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판매한 펀드의 수익률과 투자자가 지급한 비용의 적정성, 판매규모 및 고객 수를 감안한 적정 판매인력 확보 및 교육·연수 여부, 판매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계열사 펀드의 판매 비중 등이다.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 판매직원들이 펀드에 대한 단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및 투자목적, 펀드의 위험 수준, 포트폴리오 정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판매 서류를 작성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투자위험, 수수료 및 보수, 환매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판매에 열을 올린 반면에 사후관리는 부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펀드판매 능력과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국민은행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가나다순) 등 5개사는 '2007년 모범 판매회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500대 기업 CEO 명품 조사

에쿠스·발렌타인·금강제화 1위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사장 변형윤)이 매년 국내 500대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CEO 명품' 조사에서 올해도 현대차의 에쿠스 승용차, 발렌타인 양주, 금강제화의 구두 등이 변함없이 부문별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23일 월간현대경영에 따르면 500대 기업 CEO 가운데 127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승용차는 에쿠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CEO가 68.6%로 가장 많았다. 에쿠스는 이로써 6년 연속 CEO 선호 1위를 유지했다.

양주 부문에서 발렌타인(63.4%)은 5년 연속, 맥주 부문에서 하이트(41.4%)는 6년 연속, 정장구두 부문에서 금강제화(67.9%)는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동통신 부문의 SK텔레콤(90.4%)과 노트북 부문의 삼성 'it SENS'(67.8%), TV 부문의 삼성 PAVV(55.9%), 항공부문의 대한항공(76.6%)도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1위가 뒤바뀐 부문도 적지 않았다. 소주 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 1위를 지켜온 참이슬(43.2%)이 2위로 내려앉은 반면 처음처럼(55.9%)이 선두를 빼앗았다. /연합뉴스

인수위 "종부세 한번에 2~3배 인상 없을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종부세가 한번에 2-3배씩 오르는 현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나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폭탄을 터뜨려 종부세가 한꺼번에 2-3배씩 오르는 등 세금 부담이 과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부과 시점이 12월인 종부세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대선 전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렸으나 부동산 안정이 최선이라는 인수위 발표가 계속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先)가격안정-후(後)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새롬W&P	정규직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5	062-945-9767
㈜지구	경리/회계/사무보조/문서관리,작성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5	062-953-4553
㈜건아에이치앤피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광주광역시)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5	02-438-4461
㈜창조인프라	웹 홈페이지제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6	062-434-0363
ING생명[본사]	[본사직영]남/여 고객상담원-중식제공(교육시)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1/28	02-3452-2612
㈜콜롬버스 모터스	수입자동차 판매영업직원/리셉션(경리,회계)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8	062-385-0407
㈜세기엔지니어링	관리직 과장급이상 남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9	062-529-8689
서암기계공업㈜	생산관리원(생산관리사무원 포함)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9	062-960-5014
동화산기㈜	08년 간부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31	062-717-7278
엘이디라이텍㈜	기구설계 가능한 연구원 채용(정규직)	대졸/경력무관	3000~3200	01/31	062-602-7849
㈜영인	생산직(밀링,용접,선반)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31	062-972-6383
㈜한성미래통신	사무직(캐드 잘 하시는분)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943-0005
㈜덕림	전화응대, 문서관리, 일반사무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952-4148
㈜성진케미칼	2008년 영업부문 신입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2	062-943-811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호남 코스닥 기업설명회 증권선물거래소는 23일 코스닥상장기업인 광주 하남산단 내 부국철강(회장 남상규)에서 '호남지역 소재 코스닥 상장법인 지방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이 회사의 경영실적과 주요 생산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